

# “씩어가는 새만금호, 해수 유통이 해결책”

### 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호 5년간 수질조사 결과 발표 “산소 부족... 데드존 형성·대량 폐사 반복으로 수질 악화”

새만금호의 바닥층이 썩고 있어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겨울철 수온 상승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고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주장했다.

지난 6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6~2020) 새만금호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간 4조3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 개선 사업을 벌였음에도 물 속에 층이 생겨 순환이 안 되고 바닥부터 썩어가는 현상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나타나고 있다.

겨울이 따뜻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겨울에도 지속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새만금호 곳곳에서 수심별 수온과 염도의 변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용존산소량), 바닥층의 상태를 분석해 왔다”며 “조사결과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수심 3m 밑으로 산소가 부족해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구역인 데드존(Dead Zone)이 만들어져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있고 바닥층도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만금호 성층화는 대개 봄~가을(4~11월)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조사단은 지난해 겨울(12월)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한 것을 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성층화가 겨울에 이어지면 호수 밑바닥이 썩는 기간이 길어져 오염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조사단의 분석이다.

조사단이 만난 새만금호 인근 어민들은 “원래 물고기가 잡히면 며칠 동안 그물을 건져 않아도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죽어버리고 썩기도 빨리 썩는다”며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를 내고 기후변화에 의해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성층화 지속을 유발하는 새만금호 담수와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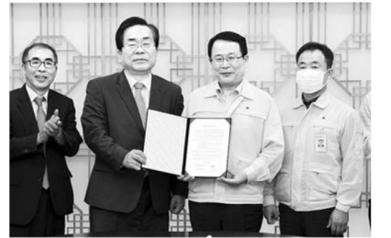
조사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새만금 수질 개

선 사업은 유입되는 유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유입된 유기물이 오염원으로 수질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호 내부에 염분 성층화로 산소없는 죽음의 층이 생겨 오염물을 분해하고 물을 정화시켜줄 미생물과 저서생물마저 다 폐사해 버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만금호와 같이 수심이 깊고 넓은 곳에서는 염분성층화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해수 유통이라는 자연의 힘을 빌려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새만금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시·공무원연금공단 ‘맞손’

### 함열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 운영

익산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7일 익산시청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의 모집과 추천, 은퇴자의 체류형 주거공간 및 교육 제공, 은퇴자의 자원봉사활동 및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함열읍에 만든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의 6가구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추천한 은퇴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센터에 입주한 은퇴자들은 5개월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익산의 농산물 판매를 돕고 은퇴자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도심 속 명품 가로숲길 조성

### 익산시, 시민 쉼터로 활용

익산시가 도심에 명품 가로숲길(사진)을 조성해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어양동 주요 도로변에 영산홍, 남천, 수국 등과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을 식재하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익산시는 기존의 인도를 활용해 6~7m폭으로 각종 관목(작은나무)류, 교목(큰나무)류 등 다양한 수목을 심어 다층식 녹지를 조성했다.

익산시는 총 300m 구간에 청단풍 등 7000 그루를 심어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으로 중앙체육공원에서 어양근린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녹지가 확충돼 도심 열섬현상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보도블록이 깔려진 자리에 화사한 꽃과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명품 가로숲길이 만들어졌으니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코로나시대 ‘드라이브스루’ 농수산물 판매 효과

### 고창군, 딸기 등 11차례 행사 진행... 1억여원 농가 수익 창출

고창군은 지역의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를 통해 1억여원의 농가 수익을 창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부진하자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를 추진했다.

고창군은 지난 4월 딸기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 선운산도립공원 등에서 바지락과 장어, 표고버섯, 수박, 복분자 등 13종의 농수산물을 판매했다.

농가들은 이 행사를 통해 냉장창고에 보관 중이

던 농수산물을 소비해 수익을 창출했으며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졌다.

지역 농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물량이 냉장창고에 쌓여있는데 이렇게 고창군에서 팔 기회를 만들어줘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워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자랑스런 군민들의 참여에 감사하다”며 “군은 모든 혁신적 수단과 창의적 대안으로 재난시대 농산물 유통의 고창형 해법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드라이브스루로 농수산물을 판매해 1억여원의 수익을 냈다.

## 순창군, 코로나19 확산에

### 채계산출렁다리 운영 중단

### 실내수영장도 무기한 휴장

순창군은 인접한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라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을 중단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은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등산로와 출렁다리 이용객 간 접촉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길이 270m로 지난 3월 개통했다.

읍내 실내수영장도 무기한 휴장한다. 실내수영장은 지난 6월 개장했지만, 풀장 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교차 수영에 의해 1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워 재휴장이 결정됐다.

순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본격화

###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부지 신축 가변형 서가·주민공간 활용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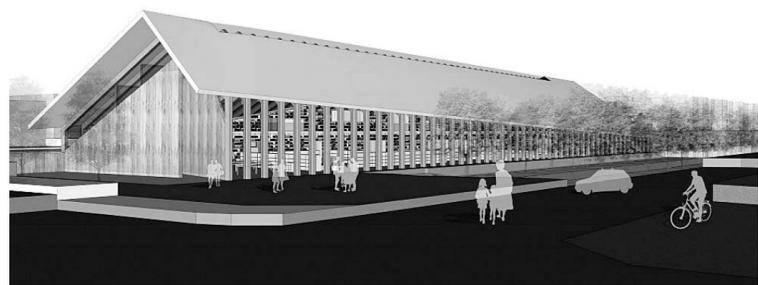
고창지역의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통합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고창읍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내 4078㎡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 사업비 128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도서관은 지난 5월 건축설계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해 오는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했다. 특히 이동가능한 가변형 서가구조를 도입해 고정돼 있는 공간이 아닌 ‘변화하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조감도.

는 도서관’을 제시했다. 인문학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 강의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 용역사의 제안 사항과 중간·최종용역 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

대한 검토·반영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운사, 고인돌, 고창읍성, 상하농원, 고창정보리밭과 더불어 고창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